

Oracle Checkpoint 메커니즘 완전 해설

백엔드 개발자를 위한 아키텍처 심층 분석

문서 개요

본 문서는 Oracle Database의 Checkpoint 메커니즘을 백엔드 개발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학습 자료다. DBA 수준의 운영 지식이 아닌,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알아야 할 아키텍처 수준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학습 목표

- Checkpoint의 존재 이유와 설계 원리 이해
- Instance Recovery 과정에서 Checkpoint의 역할 파악
- 비정상 종료 시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이해
-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적 설명 능력 확보

참고 자료

- Oracle Database 19c Concepts Guide
 - Oracle Database Instance 공식 문서
 - “Importance of Checkpoints for Instance Recovery” 섹션
-

Part 1. 서론: Checkpoint는 왜 존재하는가

1.1 근본적 딜레마: 성능과 내구성의 충돌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가장 근본적인 긴장 관계는 **성능(Performance)**과 **내구성(Durability)** 사이에 존재한다.

내구성 극대화 접근:

모든 변경 → 즉시 디스크에 기록

장점: 장애 시 데이터 손실 없음

단점: 디스크 I/O가 병목 (메모리 대비 수만 배 느림)

성능 극대화 접근:

모든 변경 → 메모리에서만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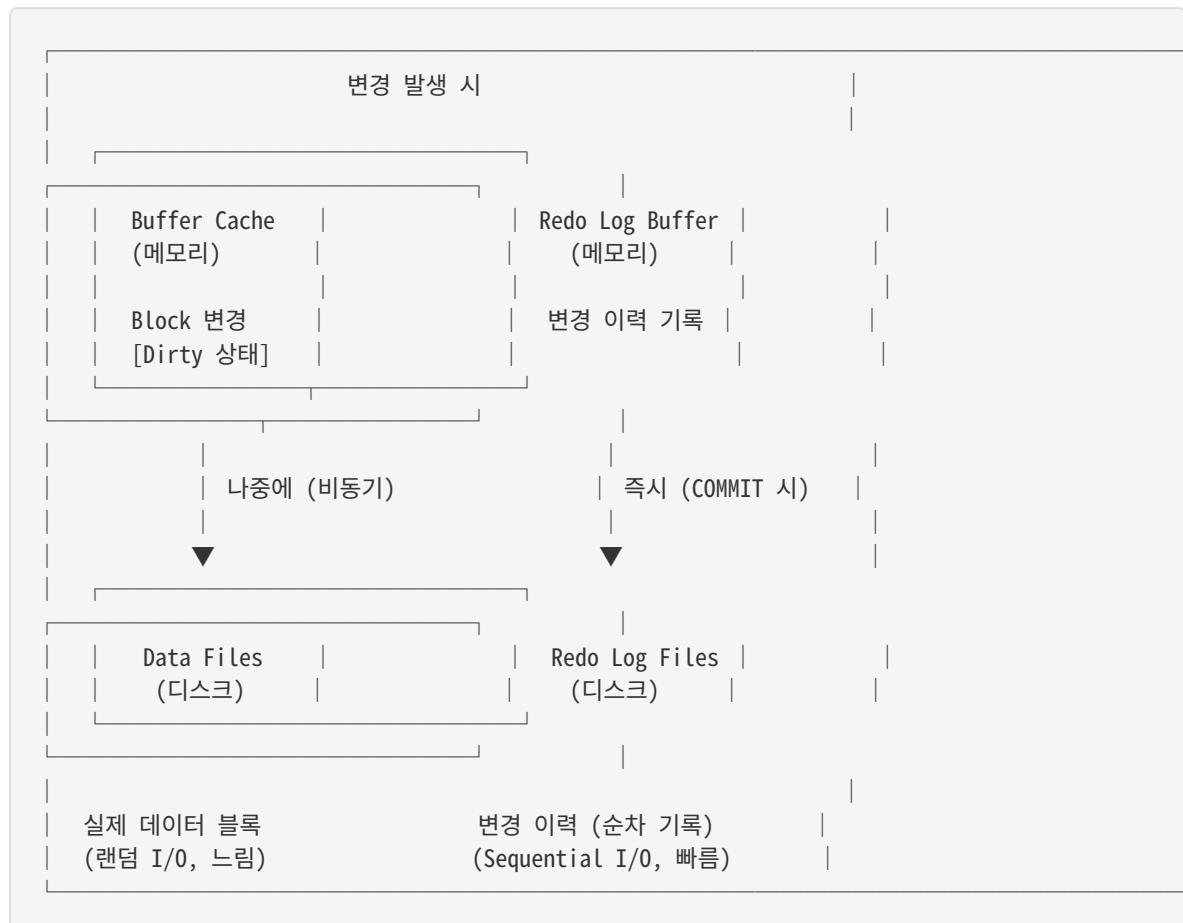
장점: 극한의 성능

단점: 장애 시 모든 데이터 손실 (메모리는 휘발성)

Oracle은 이 딜레마를 **Write-Ahead Logging(WAL)** 전략으로 해결했다.

1.2 Write-Ahead Logging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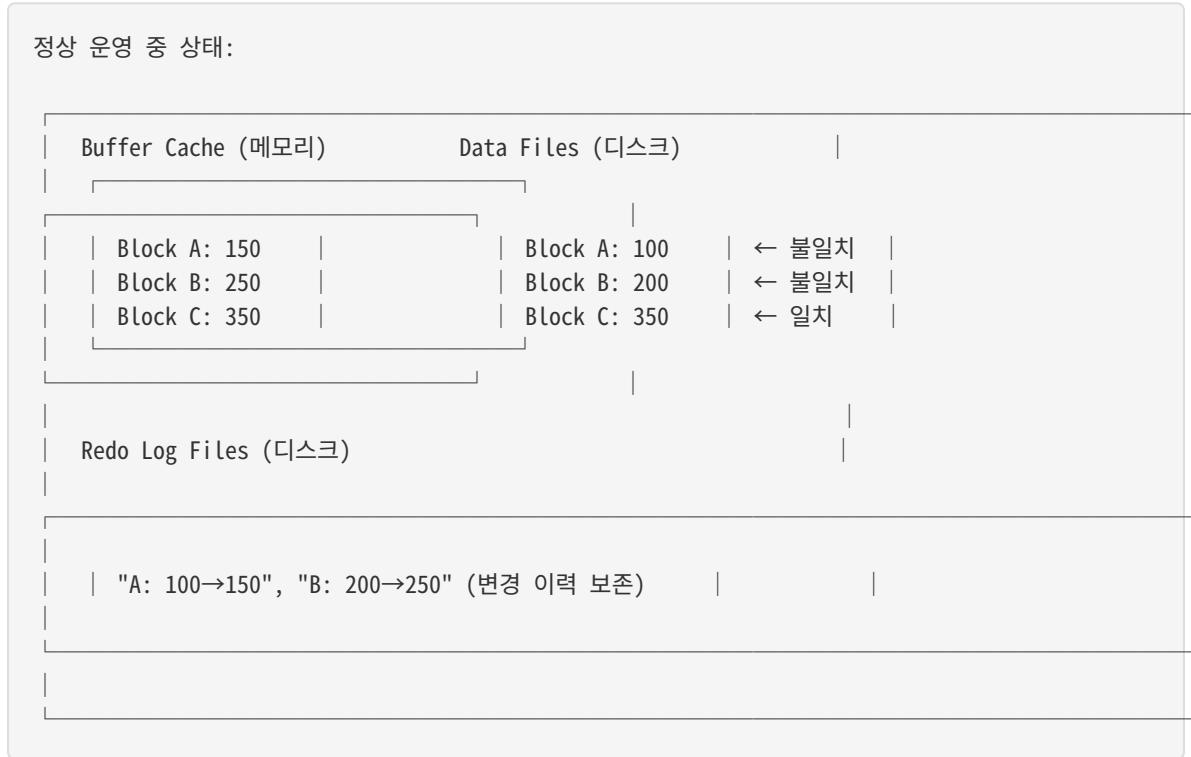
핵심 아이디어: “**실제 데이터 블록 기록은 나중으로 미루되, 변경 이력(Redo Log)만은 즉시 디스크에 기록한다.**”



WAL의 복구 원리: 변경 이력이 디스크에 있으면, 실제 데이터 블록이 손실되어도 이를 “재생(Replay)”하여 복구할 수 있다.

1.3 WAL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제

WAL 전략은 필연적으로 **메모리와 디스크 사이의 불일치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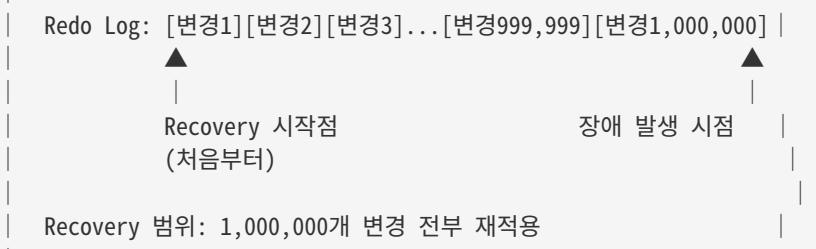
- 메모리(Buffer Cache) 내용 전부 손실
- Data Files에는 오래된 값(100, 200)만 존재
- Redo Log Files의 이력으로 복구해야 함

문제: Redo Log 전체를 처음부터 재생하면 복구 시간이 수 시간~수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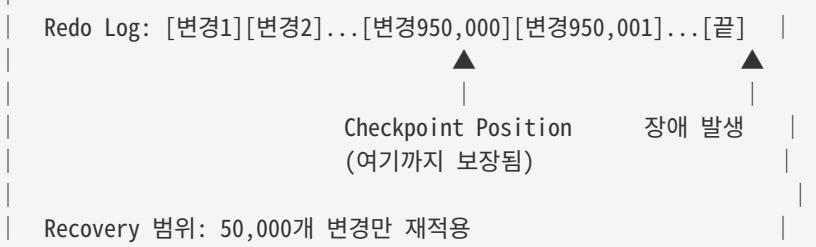
1.4 Checkpoint의 존재 목적

Checkpoint는 “이 시점까지의 모든 변경은 Data Files에 기록 완료되었다”는 동기화 지점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이다.

Checkpoint가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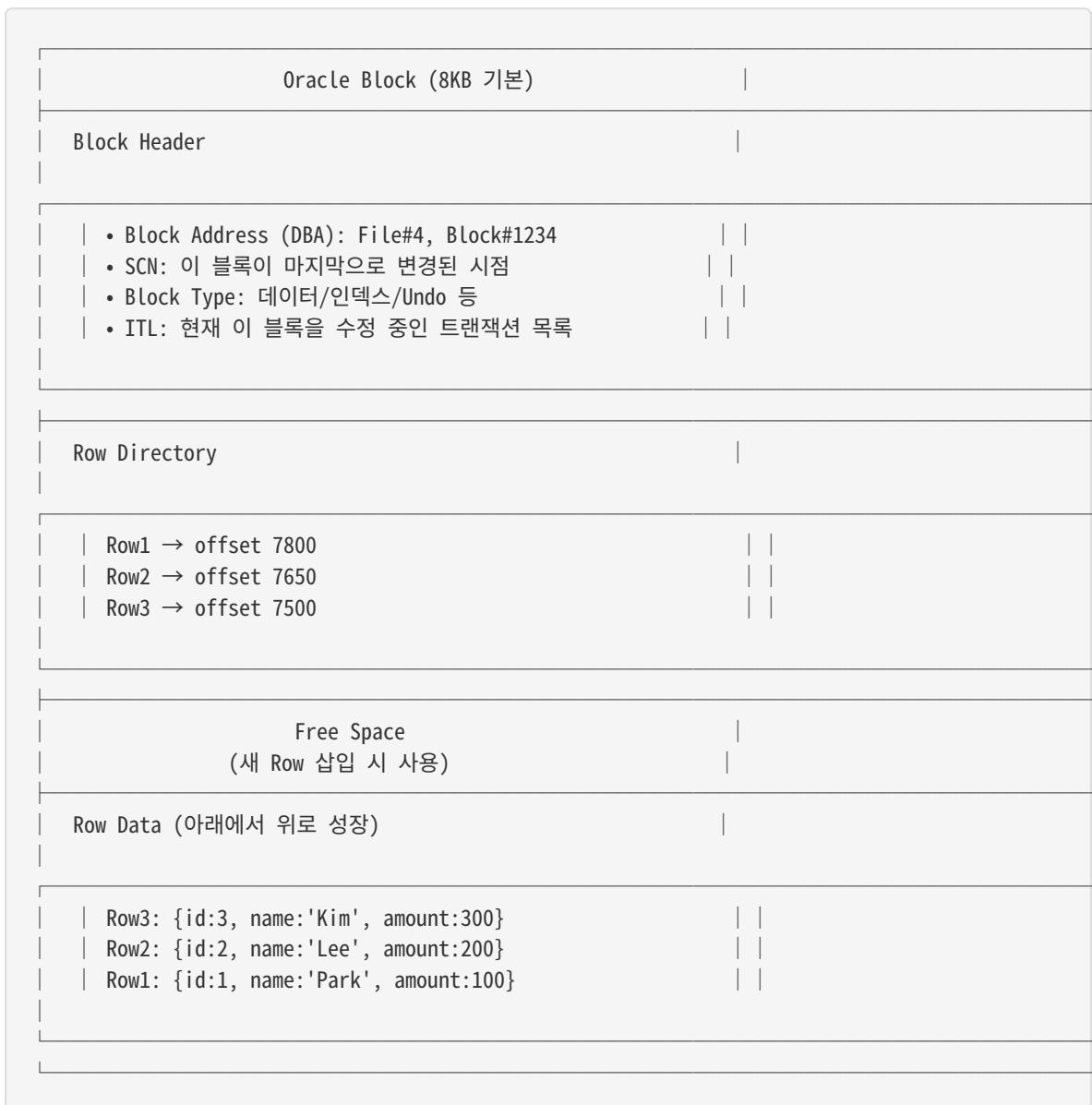
Checkpoint가 있는 경우:



Part 2. 핵심 개념 정의

2.1 블록(Block)

Oracle이 데이터를 읽고 쓰는 **최소 I/O 단위**다. 기본 크기는 8KB(DB_BLOCK_SIZE 파라미터로 설정)이며, 다음과 같은 내부 구조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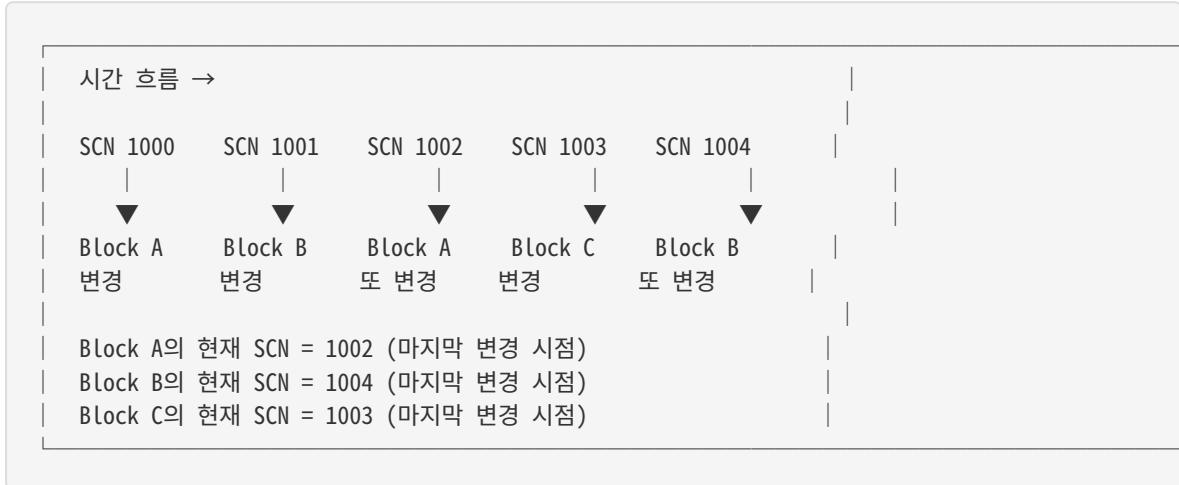


핵심 특성:

- 한 Row를 읽으려면 그 Row가 포함된 **전체 8KB 블록**을 읽음
- 한 Row를 수정하면 그 **전체 블록**이 Dirty 상태가 됨
- 블록의 SCN이 Checkpoint와 Recovery의 핵심 기준값이 됨

2.2 SCN (System Change Number)

Oracle의 **논리적 타임스탬프**다. 물리적 시간(clock)이 아니라, 변경 순서를 나타내는 단조 증가 정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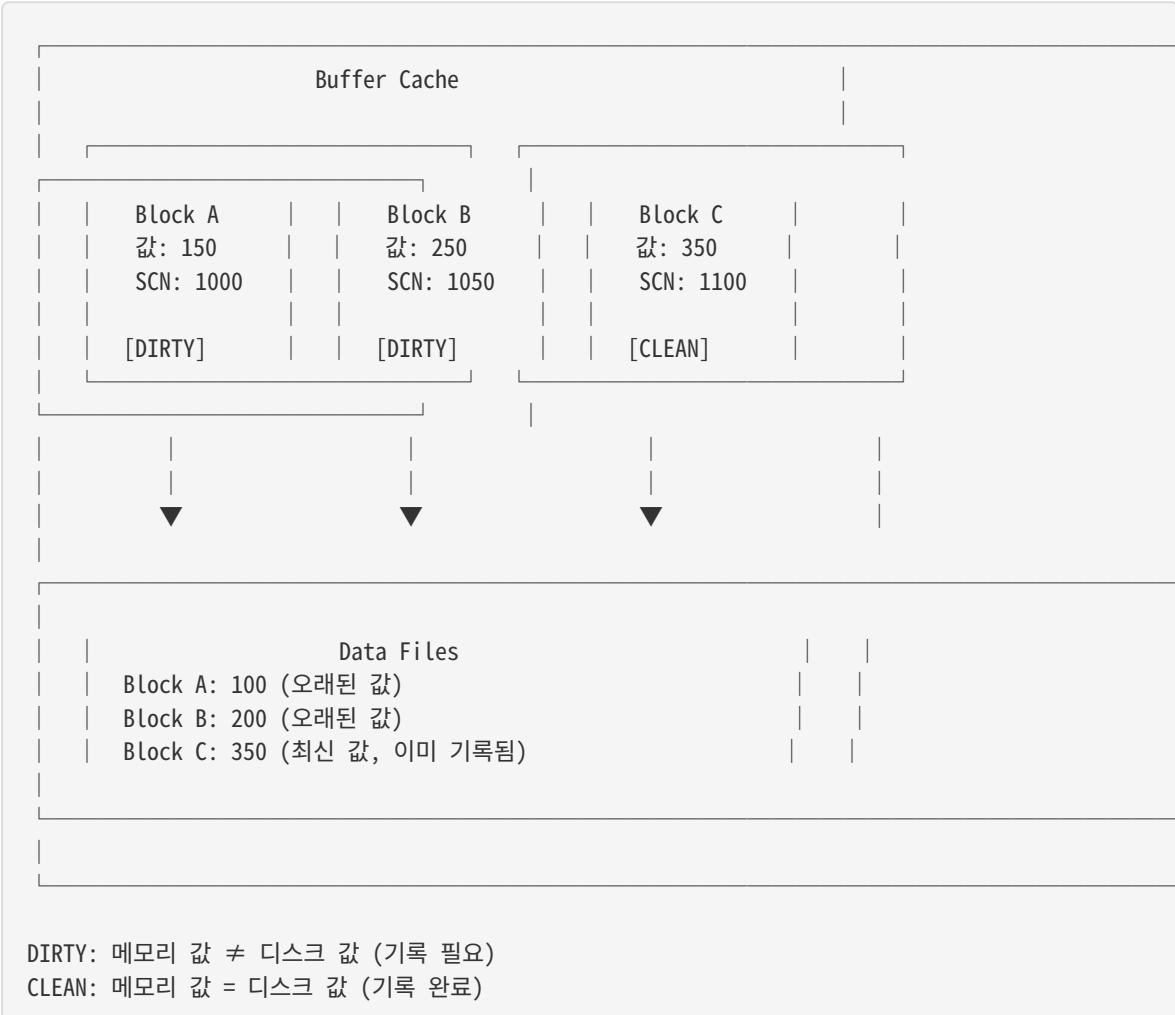


SCN의 역할:

- 모든 변경에 고유한 순서 부여
- 블록의 “나이”를 판단하는 기준
- Checkpoint Position의 단위
- Recovery 시 적용 범위 결정

2.3 Dirty Buffer

Buffer Cache 내에서 **변경되었지만 아직 Data Files에 기록되지 않은 블록**을 지칭하는 상태다.



중요: Dirty Buffer는 별도의 메모리 영역이 아니라, Buffer Cache 내 블록의 상태 플래그다.

2.4 Checkpoint Position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의 SCN”으로 정의되며, “이 SCN 미만의 모든 변경은 Data Files에 보장됨”을 의미한다.

Buffer Cache의 Dirty Buffer 목록

Block A (SCN 1000) [Dirty] ←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
Block B (SCN 1050) [Dirty]
Block C (SCN 1100) [Dirty]
Block D (SCN 1150) [Di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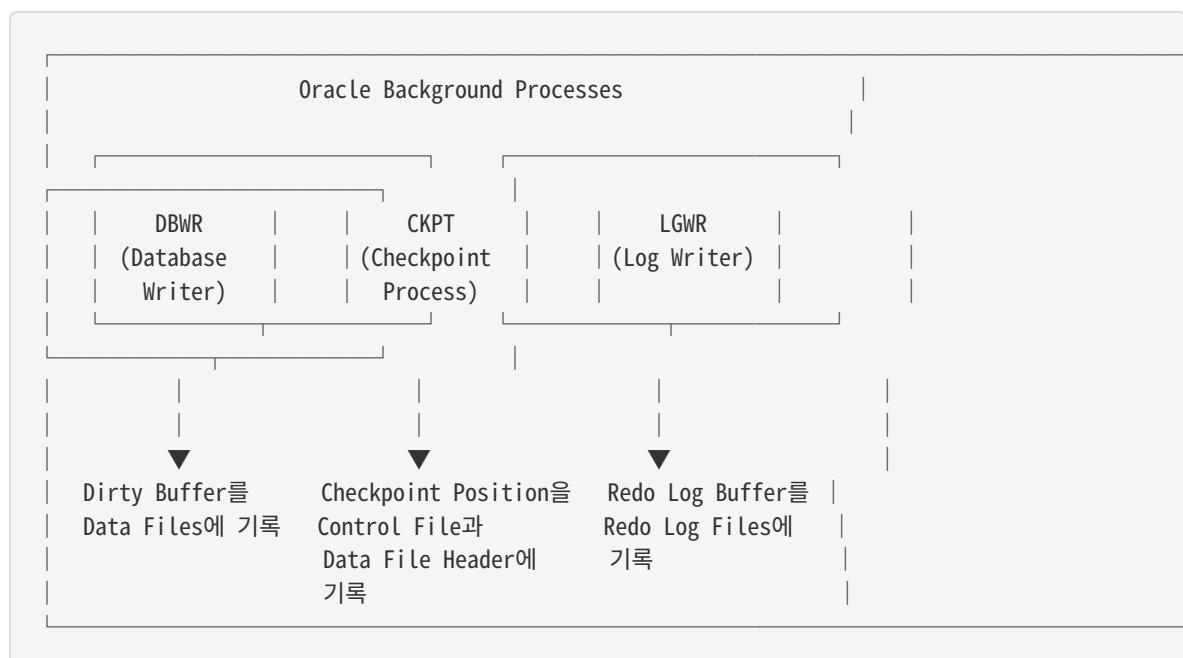
Checkpoint Position = SCN 1000

의미:

- SCN 1000 미만의 모든 변경 → Data Files에 반드시 있음
- SCN 1000 이상의 변경 → Data Files에 있을 수도, 없을 수도

Part 3. Checkpoint 메커니즘의 구성요소

3.1 관련 프로세스



DBWR (Database Writer):

- Dirty Buffer를 Data Files에 기록하는 실제 작업 수행
- Checkpoint Queue에서 가장 오래된 것부터 기록

- COMMIT과 무관하게 비동기적으로 동작

CKPT (Checkpoint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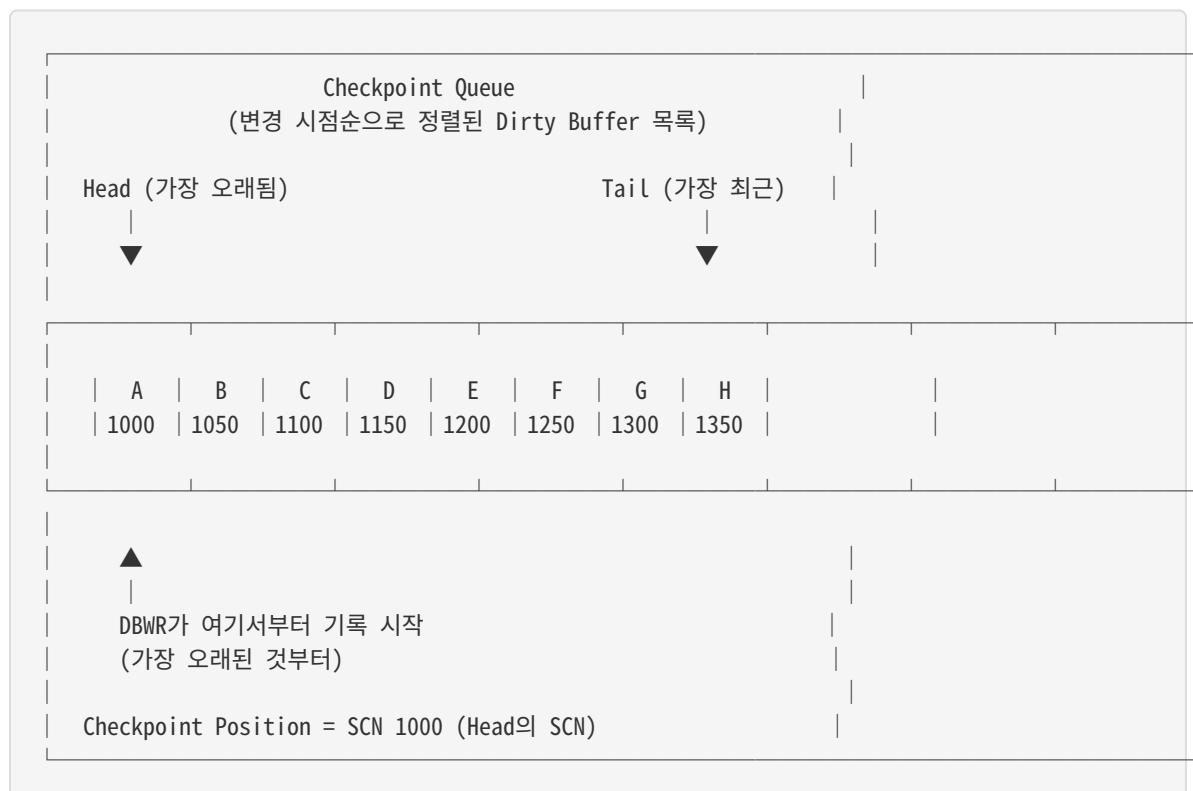
- Checkpoint Position을 Control File에 기록
- Data File Header에 Checkpoint 정보 기록
- Incremental Checkpoint: DBWR가 기록한 결과(가장 오래된 Dirty Buffer 위치)를 수집하여 반영
- Full Checkpoint (SHUTDOWN, ALTER SYSTEM CHECKPOINT 등): DBWR에게 전체 기록 지시

LGWR (Log Writer):

- Redo Log Buffer를 Redo Log Files에 기록
- COMMIT 시 반드시 동작 (동기적)
- Checkpoint와 직접 관련은 없으나, Log Switch 시 Checkpoint 트리거

3.2 Checkpoint Queue

Dirty Buffer를 변경 시점(SCN) 순서로 관리하는 자료구조다.



왜 “가장 오래된 것부터” 기록하는가:

시나리오 비교:

[무작위 순서 기록]

A	B	C	D	E	← 초기 상태
1000	1050	1100	1150	1200	

Checkpoint Position = 1000

DBWR가 C, E를 기록 →

A	B		D		
1000	1050		1150		

Checkpoint Position = 여전히 1000 (A가 Dirty)

→ Recovery 범위: SCN 1000 ~ 끝 (개선 없음)

[가장 오래된 것부터 기록]

A	B	C	D	E	← 초기 상태
1000	1050	1100	1150	1200	

Checkpoint Position = 1000

DBWR가 A, B를 기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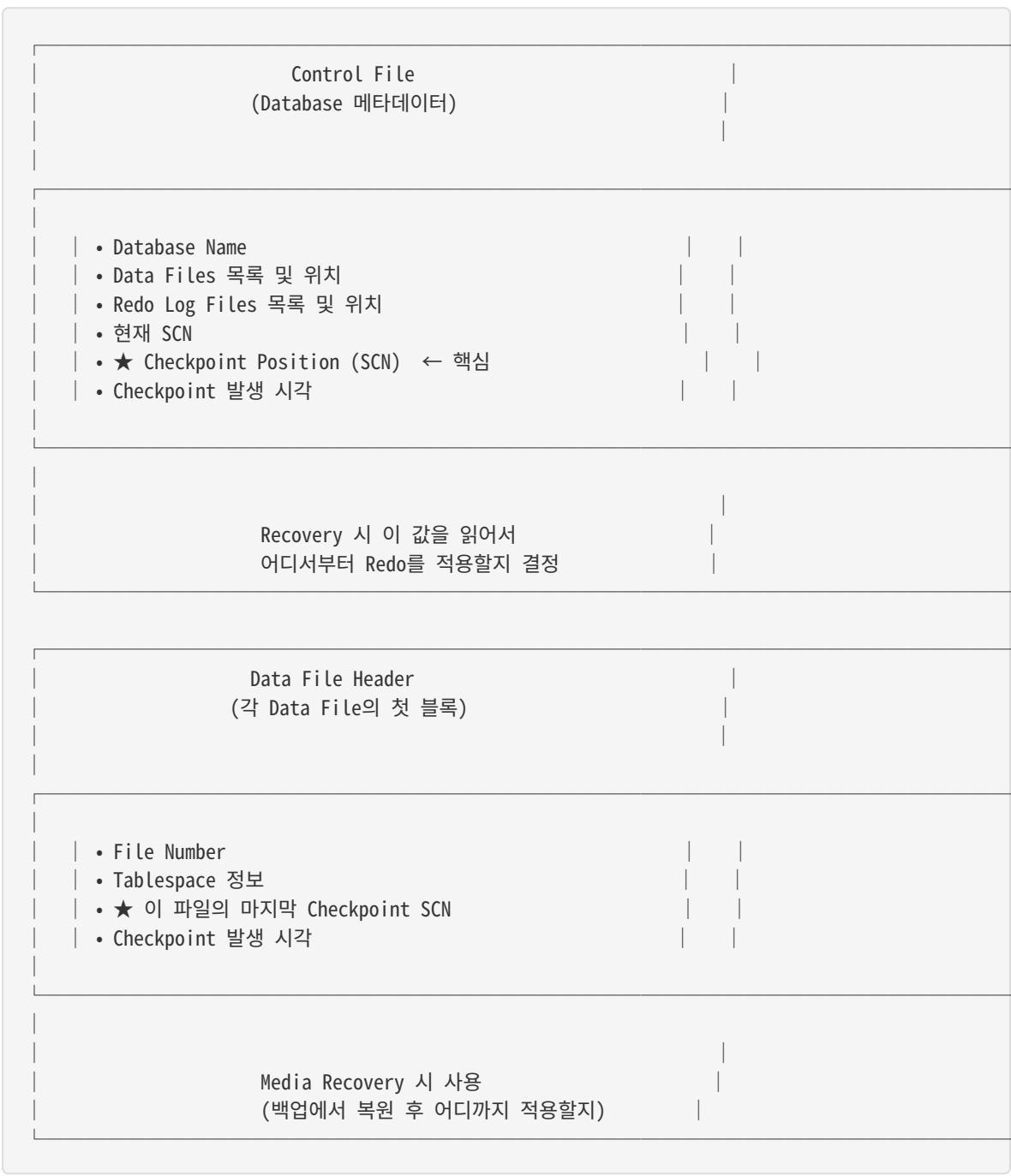
		C	D	E	
		1100	1150	1200	

Checkpoint Position = 1100 (C가 새로운 Head)

→ Recovery 범위: SCN 1100 ~ 끝 (대폭 감소)

3.3 Control File과 Data File Header

Checkpoint 정보가 영구 저장되는 위치다.



Part 4. Checkpoint의 동작 원리

4.1 Checkpoint Position 결정 메커니즘

Oracle 공식 문서 정의:

“The checkpoint position is determined by the oldest dirty buffer in the database buffer cache.”

이 정의가 무결성을 보장하는 논리적 근거가 된다:

논리적 증명:

전제 1: Checkpoint Position =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의 SCN

전제 2: Dirty Buffer는 아직 Data Files에 기록되지 않은 블록

추론:

1. Checkpoint Position이 SCN 1000이면,
SCN 1000인 블록이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다.
2. SCN 999인 Dirty Buffer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그 블록이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가 되어야 한다.
3. 그러나 Checkpoint Position이 1000이므로,
SCN 999인 Dirty Buffer는 존재할 수 없다.
4. Dirty가 아니면 Clean이다 = Data Files에 기록되었다.

결론: SCN 1000 미만의 모든 블록은 Data Files에 반드시 있다.

4.2 Checkpoint Position 이후에 이미 기록된 블록이 존재하는 이유

Oracle 공식 문서 Figure 14-5를 분석하면, Checkpoint Position 이후에 일부 블록은 이미 Data Files에 기록되어 있고(검은색), 일부는 아직 기록되지 않은(흰색) 상태가 존재한다.

Checkpoint Position

End of Redo Thread



□ = 아직 Data Files에 기록 안됨 (Dirty)

■ = 이미 Data Files에 기록됨 (Clean)

이 상태가 발생하는 이유:

Checkpoint 메커니즘과 별개로, DBWR는 다른 트리거에 의해서도 Dirty Buffer를 기록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Free Buffer 확보다.

Checkpoint 외의 DBWR 기록 트리거

1. Free Buffer 확보 (LRU 기반)

서버 프로세스가 새 블록을 Buffer Cache로 읽으려 할 때
Free Buffer가 부족하면, LRU 리스트의 Cold 끝에 있는 Dirty Buffer를
Data Files에 기록하여 Free Buffer로 전환한다.

→ 이 경우 Checkpoint Queue 순서와 무관하게 LRU 순서로 기록됨

2. 테이블스페이스 오프라인, 테이블 DROP 등 해당 객체와 관련된 Dirty Buffer만 선별적으로 기록

3. Direct Path Write

특정 작업(대량 로드 등)에서 Buffer Cache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록

시점 T1: 모두 Dirty 상태

Block A (SCN 1000) [Dirty]	← 가장 오래된 Dirty
Block B (SCN 1050) [Dirty]	
Block C (SCN 1100) [Dirty]	
Block D (SCN 1150) [Dirty]	

Checkpoint Position = SCN 1000 (A의 SCN)

시점 T2: Free Buffer 확보를 위해 LRU Cold 끝의 B, D가 기록됨 (Checkpoint Queue 순서가 아닌 LRU 순서에 의한 기록)

Block A (SCN 1000) [Dirty]	← 여전히 가장 오래됨
Block B (SCN 1050) [Clean]	← Data Files에 기록됨
Block C (SCN 1100) [Dirty]	
Block D (SCN 1150) [Clean]	← Data Files에 기록됨

Checkpoint Position = 여전히 SCN 1000
(B, D가 기록되었어도 A가 여전히 Dirty이므로 전진하지 않음)

핵심: Checkpoint Position은 “DBWR가 기록한 지점”이 아니라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의 SCN**”이다. DBWR는 Checkpoint Queue(SCN 순서)와 LRU 리스트(접근 빈도 순서) 두 가지 경로로 Dirty Buffer를 기록하며, 후자의 경우 Checkpoint Position 이후의 블록이 먼저 기록될 수 있다.

4.3 Incremental Checkpoint

Checkpoint Position을 점진적으로 전진시키는 메커니즘이다.

Incremental Checkpoint 동작

[T1] 초기 상태

Checkpoint Queue: [A:1000][B:1050][C:1100][D:1150][E:1200]

Checkpoint Position = 1000

[T2] DBWR가 3초 후 동작, A를 기록

Checkpoint Queue: [B:1050][C:1100][D:1150][E:1200]

Checkpoint Position = 1050 ← CKPT가 Control File 업데이트

[T3] DBWR가 3초 후 동작, B를 기록

Checkpoint Queue: [C:1100][D:1150][E:1200]

Checkpoint Position = 1100 ← 또 전진

[T4] 새 변경 발생 (F:1250, G:1300)

Checkpoint Queue: [C:1100][D:1150][E:1200][F:1250][G:1300]

Checkpoint Position = 1100 ← C가 여전히 Head

→ Checkpoint Position이 꾸준히 전진하면서

Recovery 범위를 최소화

Incremental Checkpoint의 목적:

- Recovery 시간 최소화 (MTTR 보장) - 본질적 목적
- Recovery 범위를 지속적으로 최소화
- I/O 부하를 분산하여 Log Switch 시 대량 기록 방지 (부수적 효과)

4.4 Thread Checkpoint (Full Checkpoint)

특정 이벤트 발생 시 모든 Dirty Buffer를 기록하는 Checkpoint다.

Thread Checkpoint 발생 상황

1. 정상 종료 (SHUTDOWN NORMAL/IMMEDIATE/TRANSACTIONAL)

→ 모든 Dirty Buffer를 Data Files에 기록

→ 재시작 시 Instance Recovery 불필요

2. Online Redo Log Switch

→ 해당 Redo Log 파일이 보호하는 모든 Dirty Buffer가
Data Files에 기록되어야 해당 파일 재사용 가능

→ 미완료 시 LGWR가 "checkpoint not complete" 대기 발생

3. ALTER SYSTEM CHECKPOINT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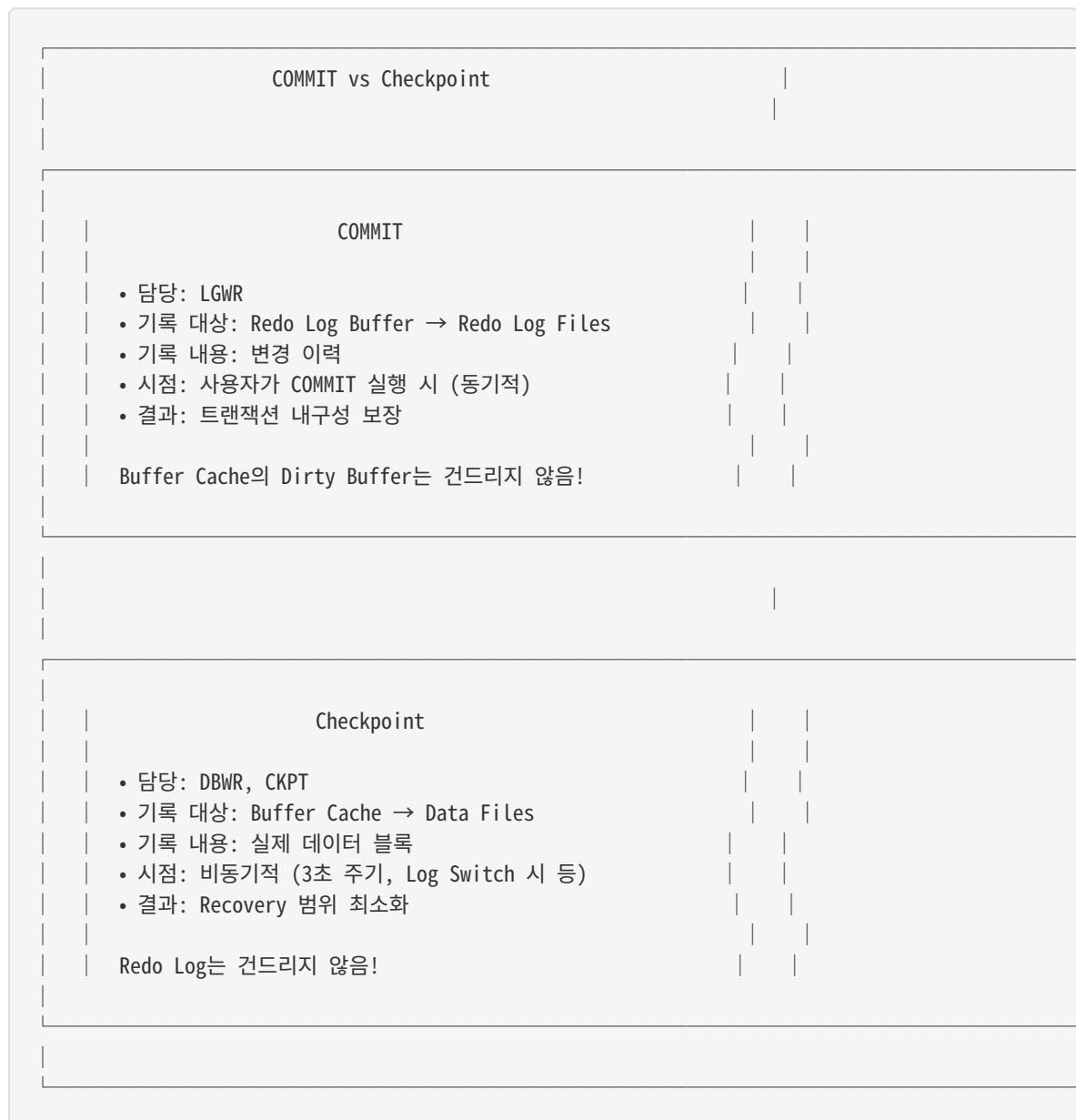
→ DBA가 수동으로 Checkpoint 강제 실행

4. ALTER DATABASE BEGIN BACKUP

→ 백업 시작 전 일관성 확보

4.5 Checkpoint와 COMMIT의 관계

핵심: COMMIT과 Checkpoint는 완전히 별개의 작업이다.



시간 흐름 예시:

T1: UPDATE 실행 → Buffer Cache 변경, Redo Buffer 기록

T2: COMMIT 실행 → LGWR가 Redo Log Files에 기록

(이 시점에 Data Files는 변경 안됨!)

T3: (나중에) DBWR가 Dirty Buffer를 Data Files에 기록

T2~T3 사이에 장애 발생하면?

→ COMMIT은 완료됨 (Redo Log에 기록됨)

→ Data Files에는 아직 반영 안됨

→ Instance Recovery로 Redo 재적용하여 복구

Part 5. Instance Recovery에서의 Checkpoint 역할

5.1 메모리 vs 디스크: 장애 시 각 구성요소의 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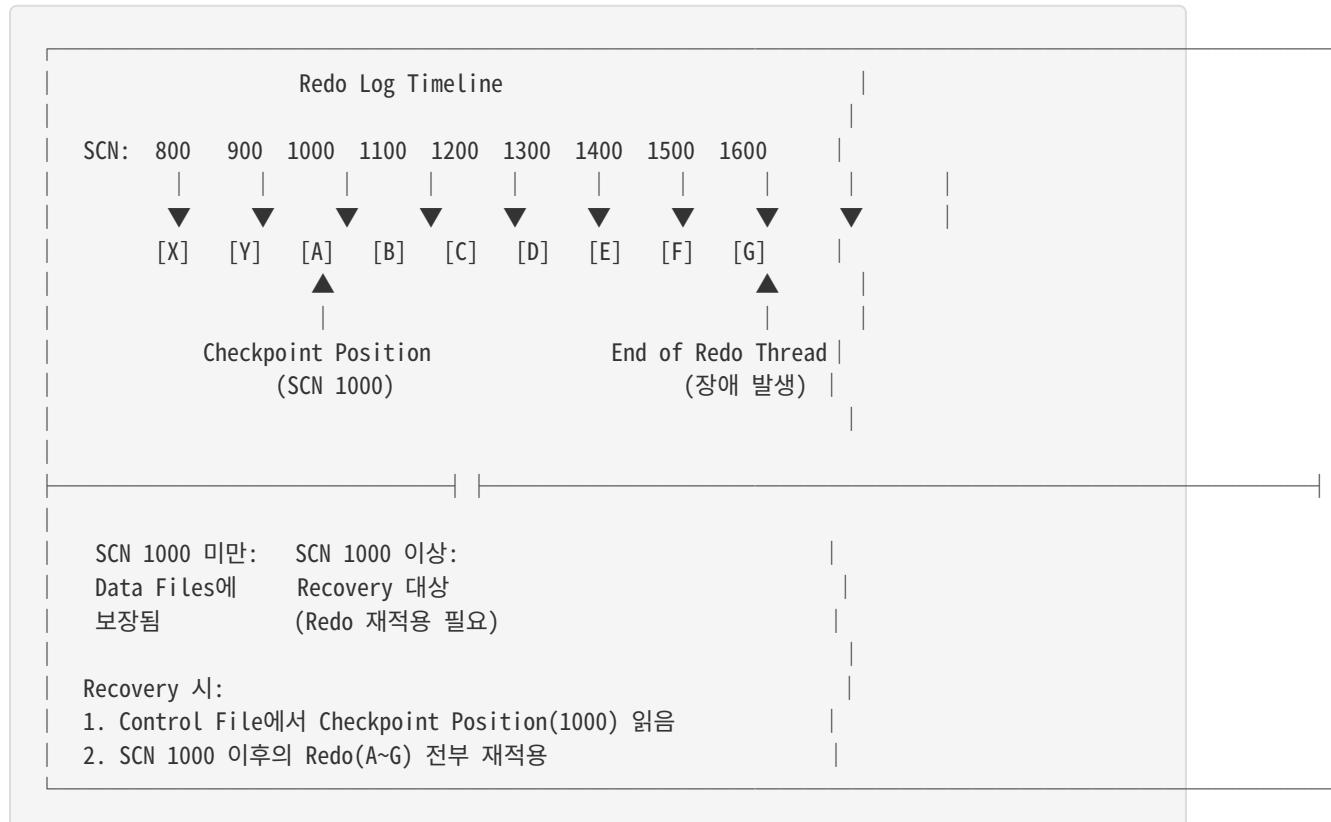


핵심 포인트:

- **Checkpoint Queue**는 메모리에 있다 → 장애 시 손실됨
- **Checkpoint Position**은 **Control File**(디스크)에 있다 → 장애 후에도 “어디까지 보장되는지” 알 수 있음

- Redo Log Files도 디스크에 있다 → 모든 변경 이력이 보존됨
- 두 가지의 결합으로 복구 가능:
 - Control File의 Checkpoint Position → “어디서부터” 복구할지 결정
 - Redo Log Files → “무엇을” 복구할지 제공

5.2 Recovery 범위 결정



5.3 “이미 기록된 블록”的 처리와 면등성

Checkpoint Position 이후에 일부 블록은 DBWR에 의해 이미 Data Files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Oracle은 어떤 것이 기록되었는지 개별 추적하지 않는다. 따라서 Recovery 시 해당 범위의 모든 Redo를 재적용한다.

장애 발생 직전 Buffer Cache 상태

Block A (SCN 1000) [Dirty] ← Checkpoint Position
Block B (SCN 1100) [Clean] ← 이미 Data Files에 기록됨
Block C (SCN 1200) [Dirty]
Block D (SCN 1300) [Clean] ← 이미 Data Files에 기록됨
Block E (SCN 1400) [Dirty]

Checkpoint Position = SCN 1000

Recovery 시:

- Oracle은 B, D가 이미 기록되었는지 모름
- SCN 1000 이후 모든 Redo(A, B, C, D, E)를 전부 재적용

왜 문제가 안 되는가?

- Redo 적용은 멱등(Idempotent)함
- "Block B의 offset 100을 값 X로 변경"
- 이미 X라면 → X로 다시 변경 → 결과 동일
- 아직 X가 아니라면 → X로 변경 → 정상 복구

블록 SCN 비교를 통한 멱등성 구현:

멱등성 보장 메커니즘

Redo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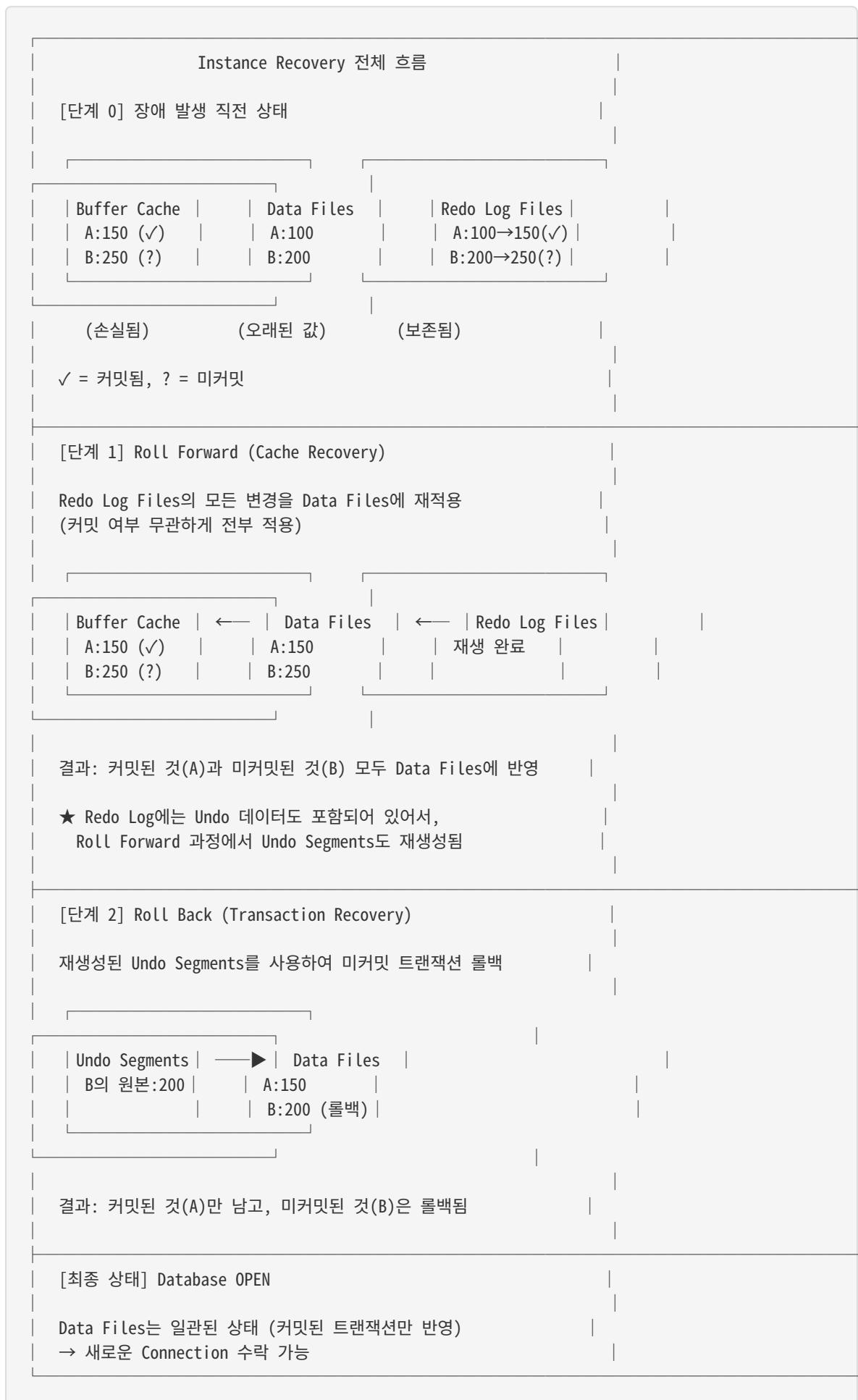
DBA: File 4, Block 12345
SCN: 1050
변경: offset 1840을 150으로

Case 1: 블록이 아직 오래된 상태
Block 12345 Header: Block SCN = 900
→ 900 < 1050 이므로 이 블록에 Redo 적용 필요
→ offset 1840을 150으로 변경
→ Block SCN을 1050으로 업데이트

Case 2: 블록이 이미 최신 상태
Block 12345 Header: Block SCN = 1050
→ 1050 >= 1050 이므로 이 Redo는 이미 적용됨
→ Skip (적용하지 않음)

Case 3: 블록이 더 최신 상태
Block 12345 Header: Block SCN = 1100
→ 1100 > 1050 이므로 이 Redo는 이미 적용됨
→ Skip

5.4 Instance Recovery의 두 단계



Part 6. Redo Log Record와 블록 매팅

6.1 핵심 질문: 랜덤하게 분산된 블록을 어떻게 Redo Log와 매팅하는가?

Redo Log는 단순히 “A 변경, B 변경”이라는 추상적 기록이 아니다. 각 Record는 물리적 주소 (**DBA: Data Block Address**)를 포함한다.

Redo Log Record (Change Vector) 구조

하나의 Redo Record

DBA (Data Block Address)

- File Number: 4
- Block Number: 12345

→ "이 변경은 File 4의 Block 12345에 적용해야 함"

SCN: 1050

→ "이 변경이 발생한 논리적 시점"

Operation Code: 11.5 (UPDATE)

→ "어떤 종류의 변경인지"

Offset: 18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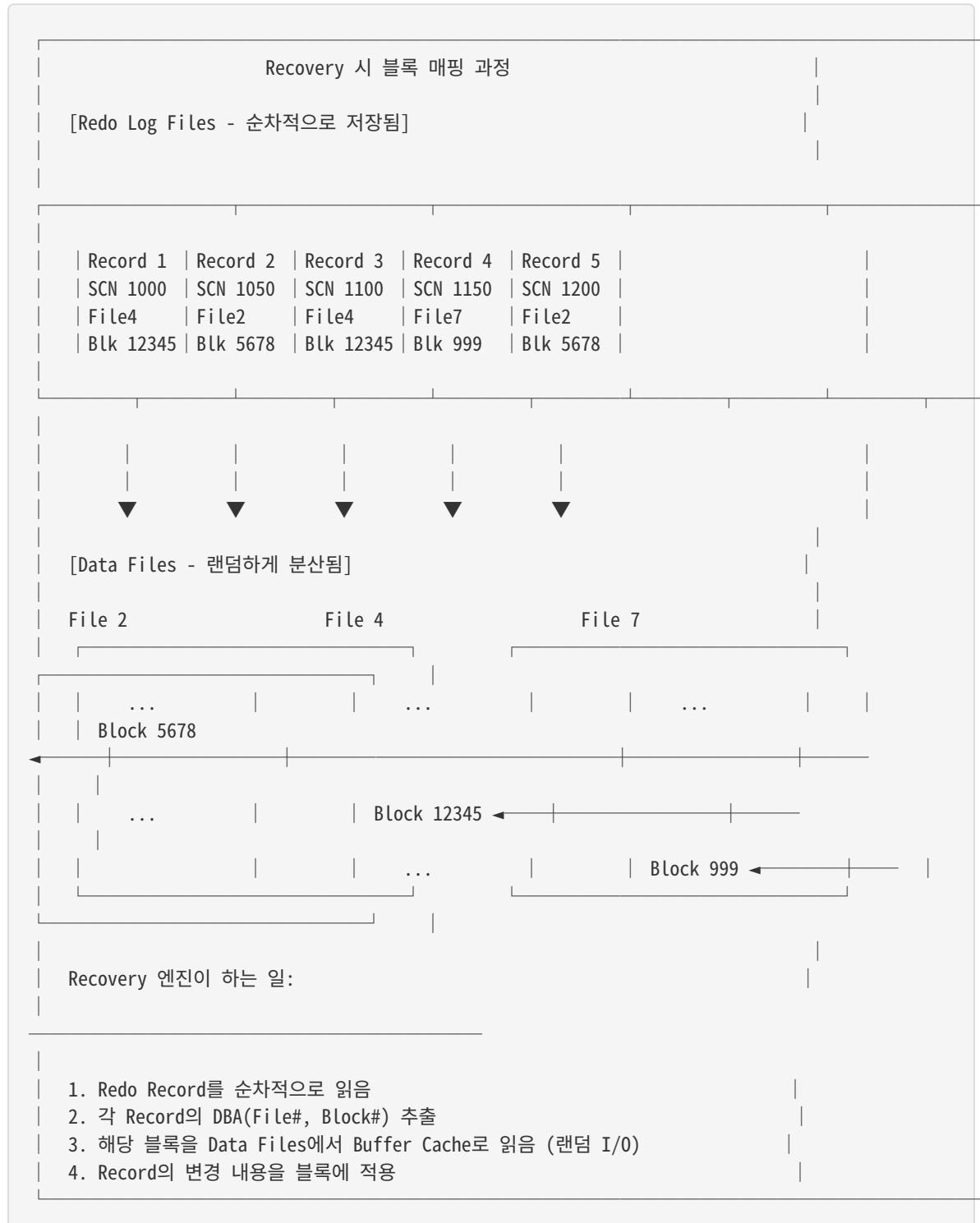
Length: 4 bytes

New Value: 0x00000096 (150)

→ "블록 내 offset 1840 위치에 4바이트를 150으로 변경"

Redo Record는 "자기 완결적(Self-Contained)"이다.
이 Record 하나만 있으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지 전부 알 수 있다.

6.2 Recovery 시 매팅 과정



6.3 전체 Recovery 흐름 (정확한 버전)

Instance Recovery 상세 흐름

- [1] Control File에서 Checkpoint Position 읽기
→ SCN 1000
- [2] Redo Log Files에서 SCN 1000 이후 Record들을 순차적으로 읽기
 - for each Redo Record (SCN \geq 1000):

[2-1] Record에서 DBA 추출 (예: File 4, Block 12345)

- [2-2] 해당 블록이 Buffer Cache에 있는지 확인
 - 없으면: Data Files에서 읽어옴 (Random Read)
 - 있으면: 그대로 사용

- [2-3] 블록의 SCN과 Redo Record의 SCN 비교
 - Block SCN \geq Redo SCN: Skip (이미 적용됨)
 - Block SCN < Redo SCN: 적용 필요

- [2-4] Redo Record의 변경 내용을 블록에 적용
 - offset, length, new value를 사용하여 물리적 변경
 - Block SCN 업데이트
 - 블록이 Dirty 상태가 됨

[3] Roll Forward 완료 후, DBWR가 Dirty Buffer들을 Data Files에 기록

[4] Roll Back (미커밋 트랜잭션 룰백) 수행

[5] Database OPEN

6.4 요약: Redo Log와 블록 매팅

요약

Q: 랜덤하게 분산된 블록들을 어떻게 Redo Log와 매팅하는가?

A: Redo Log Record 자체에 "물리적 주소(DBA)"가 기록되어 있다.

```
Redo Record = {  
    DBA: (File#, Block#),      // ← 이것으로 블록 식별  
    SCN: 변경 시점,           // ← 이것으로 적용 여부 판단  
    Operation: 변경 유형,  
    Offset: 블록 내 위치,  
    NewValue: 새 값  
}
```

Recovery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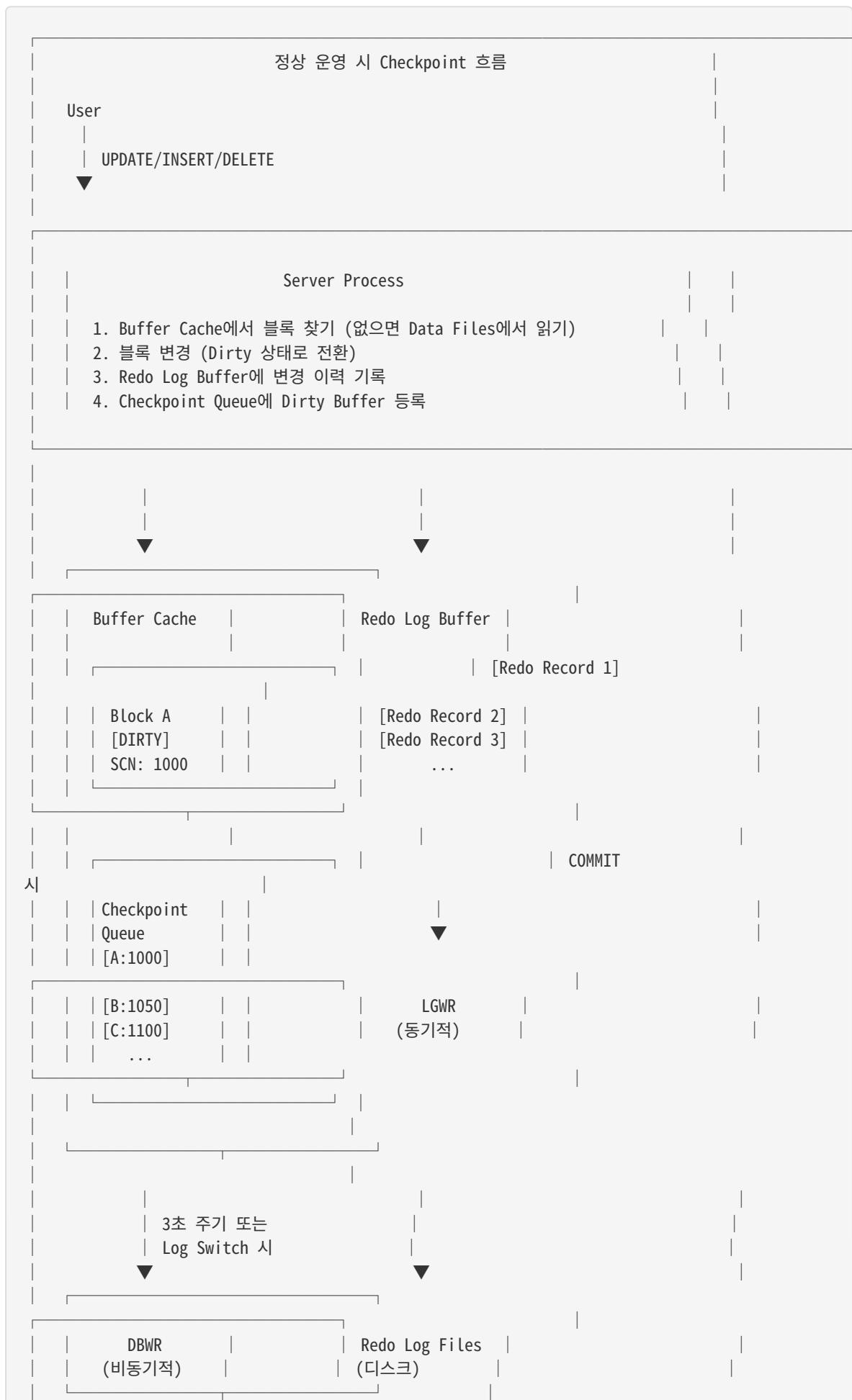
1. Redo Record 읽기
2. DBA로 해당 블록을 Data Files에서 찾아 Buffer Cache로 로드
3. Block SCN vs Redo SCN 비교하여 적용 여부 결정
4. 필요시 변경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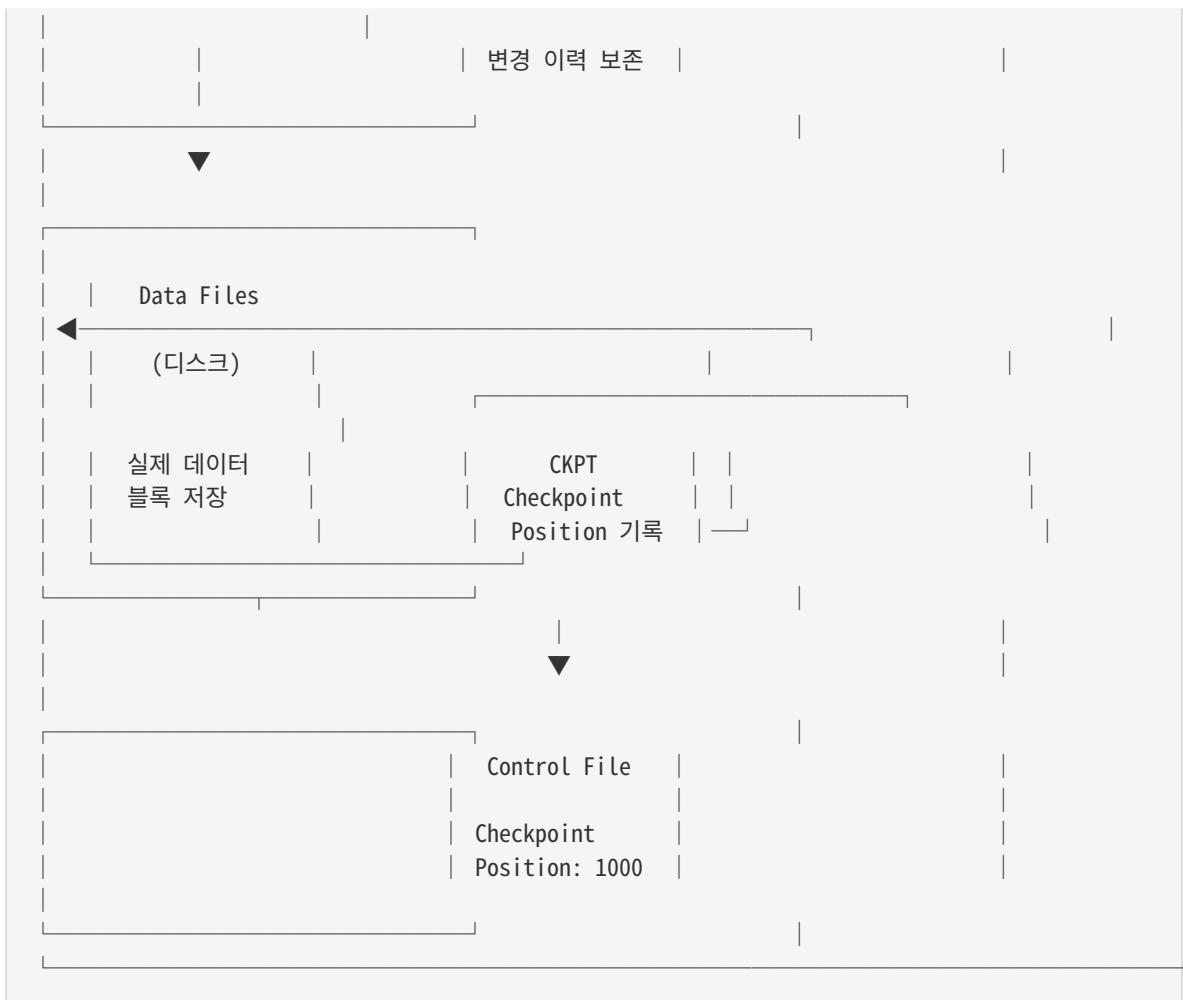
→ 블록이 디스크 어디에 있든, DBA로 정확히 찾아서 적용 가능

핵심: Redo Log가 “순차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은 **Redo Log Files** 내에서의 기록 순서이고, 각 Record가 가리키는 실제 블록의 위치는 **랜덤**하다. Record 내의 DBA가 이 둘을 연결하는 키(Key)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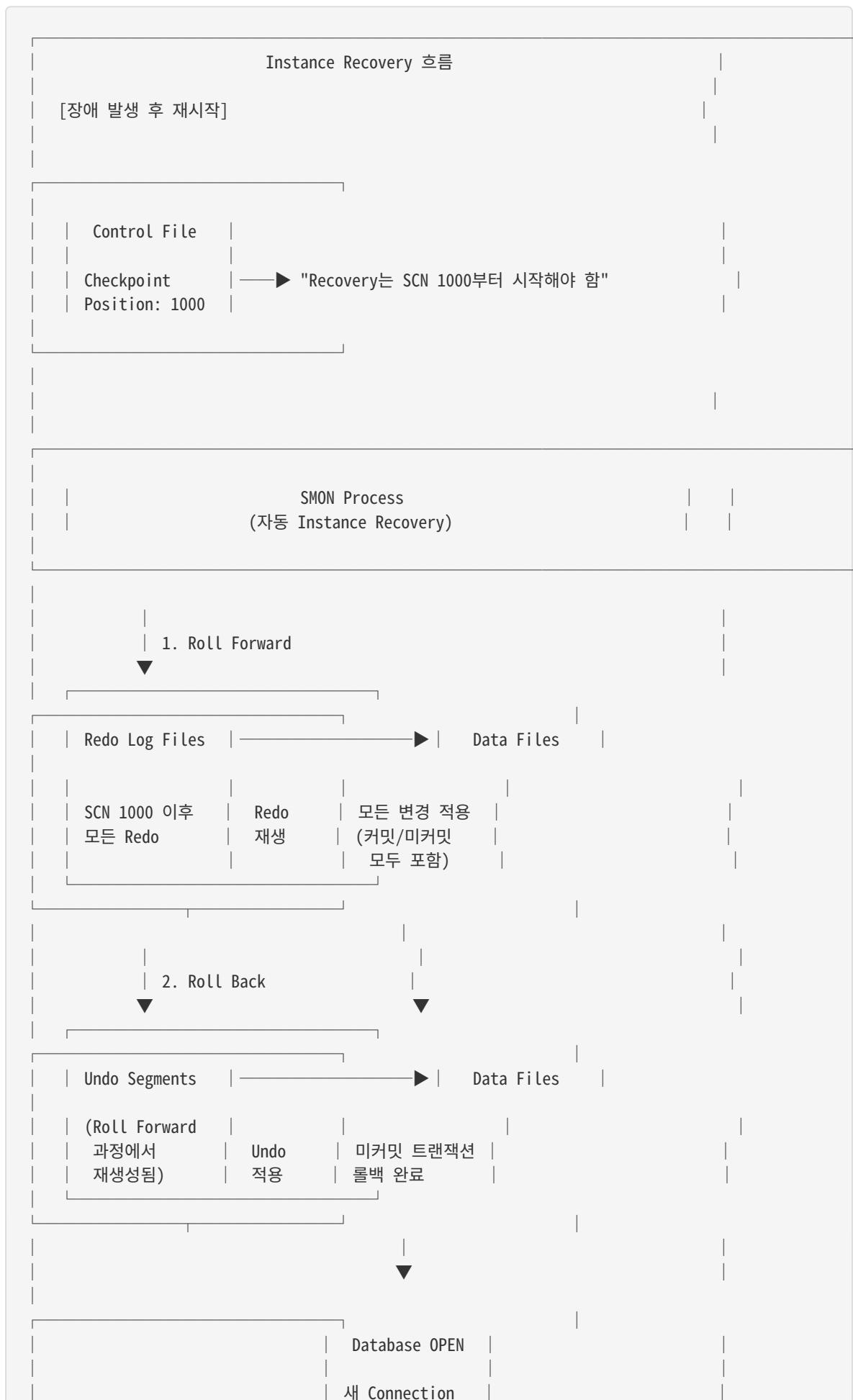
Part 7. 전체 아키텍처 디어그램

7.1 정상 운영 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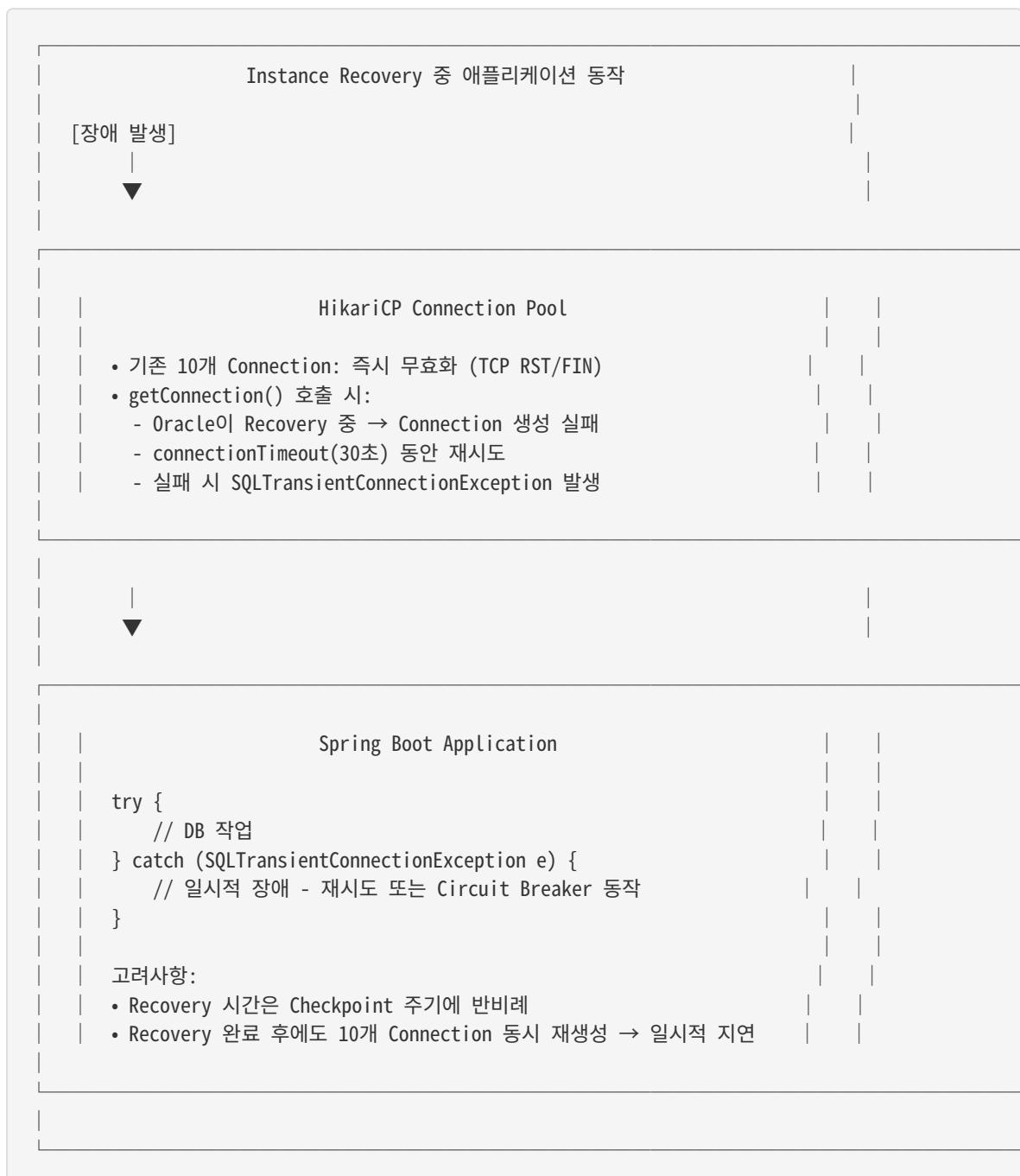


7.2 장애 후 Recovery 흐름



Part 8. 백엔드 개발자 관점의 의의

8.1 애플리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8.2 핵심 인사이트 정리

백엔드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Checkpoint 핵심

1. COMMIT ≠ Data Files 기록

- COMMIT은 Redo Log Files에만 기록 (LGWR)
- Data Files 기록은 나중에 비동기적으로 (DBWR)
- 이 사이에 장애 발생하면 Recovery로 복구

2. Checkpoint Position = Recovery 시작점

-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의 SCN"으로 정의
- 이 값 미만은 Data Files에 보장됨
- Checkpoint가 자주 발생할수록 Recovery 범위 감소

3. Recovery 중에는 Database 접근 불가

- MOUNT 상태에서 Recovery 수행
- 완료 후 OPEN 상태로 전환
- 애플리케이션은 이 기간 동안 Connection 획득 실패

4. SHUTDOWN ABORT = Checkpoint 미수행

- 다른 종료 방식은 모두 Checkpoint 수행
- ABORT만 Recovery 필요
- 서버 크래시도 ABORT와 동일한 효과

5. Redo Log Record의 자기 완결성

- 각 Record에 DBA(File#, Block#)가 포함됨
- 디스크의 어느 위치에 있는 블록이든 정확히 식별 가능
- Block SCN 비교로 역등성 보장

8.3 면접 답변 템플릿

질문: “Oracle의 Checkpoint 메커니즘을 설명해주세요.”

“Checkpoint는 메모리(Buffer Cache)와 디스크(Data Files) 간의 동기화 지점을 생성하는 메커니즘입니다.

Oracle은 성능을 위해 변경 사항을 즉시 디스크에 쓰지 않고 메모리에 유지합니다. 대신 변경 이력(Redo Log)만 즉시 디스크에 기록하는 Write-Ahead Logging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해 메모리에는 Dirty Buffer라 불리는, 아직 디스크에 기록되지 않은 변경된 블록들이 존재합니다.

Checkpoint Position은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의 SCN'으로 정의됩니다. 이 값보다 낮은 SCN의 모든 변경은 Data Files에 기록이 보장됩니다. 장애 발생 시 Instance Recovery는 Checkpoint Position 이후의 Redo Log만 재적용하면 되므로, Checkpoint가 자주 발생할수록 복구 시간이 단축됩니다.

백엔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COMMIT이 완료되어도 실제 데이터가 Data Files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Redo Log에 기록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비정상 종료 후 Recovery 기간 동안에는 새 Connection을 받을 수 없으므로, HikariCP의 connectionTimeout 설정과 예외 처리가 중요합니다.”

질문: “Instance Recovery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해주세요.”

“Instance Recovery는 비정상 종료 후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을 복원하는 자동 프로세스입니다. Recovery 범위는 Checkpoint Position에 의해 결정됩니다.

첫 번째 단계인 Roll Forward에서는 Checkpoint Position 이후의 모든 Online Redo Log를 Data Files에 재적용합니다. 이때 커밋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변경이 적용됩니다. 일부 변경은 장애 전에 이미 Data Files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지만, Oracle은 개별 추적 대신 전체 재적용 전략을 사용합니다. Redo 적용이 역등(idempotent)하기 때문에 중복 적용해도 결과가 동일합니다.

두 번째 단계인 Roll Back에서는 Roll Forward 과정에서 재생성된 Undo Segments를 사용하여 커밋되지 않은 변경을 롤백합니다.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Recovery가 완료될 때까지 Database가 OPEN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HikariCP는 이 기간 동안 Connection 획득에 실패하고, connectionTimeout 이후 SQLTransientConnectionException을 발생시킵니다.”

Part 9. 학습 범위 경계

영역	백엔드 개발자 (본 문서 범위)	DBA 영역 (본 문서 범위 외)
Checkpoint 개념	존재 이유, 동작 원리, Recovery와의 관계	파라미터 튜닝, AWR 분석
프로세스	DBWR, CKPT, LGWR의 역할	다중 DBWR 구성, 프로세스 모니터링
Checkpoint Queue	개념과 순서 기반 기록 원리	VBH, VINSTANCE_RECOVERY 뷰 분석
Recovery	범위 결정 원리, 애플리케이션 영향	병렬 Recovery 튜닝, FAST_START_MTTR_TARGET 설정
종료 모드	ABORT만 Recovery 필요하다는 사실	각 모드별 운영 판단 기준
Redo Log Record	DBA를 통한 블록 식별 원리, 멱등성 개념	LogMiner 분석, Archive Log 관리

Part 10. 용어 정리

용어	정의	위치
Buffer Cache	디스크에서 읽어온 데이터 블록을 메모리에 임시 저장하는 영역	메모리 (SGA)
Dirty Buffer	Buffer Cache 내에서 변경되었지만 아직 Data Files에 기록되지 않은 블록의 상태	Buffer Cache 내부
Redo Log Buffer	변경 이력을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 영역	메모리 (SGA)
Redo Log Files	Redo Log Buffer의 내용이 디스크에 영구 저장된 파일	디스크
Data Files	실제 데이터 블록이 저장된 파일	디스크
Control File	Database 메타데이터 (Checkpoint Position 포함)가 저장된 파일	디스크
Checkpoint Queue	Dirty Buffer를 변경 시점(SCN) 순서로 관리하는 자료구조	메모리
Checkpoint Position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의 SCN, Recovery 시작점	Control File (디스크)
SCN	System Change Number, 변경 순서를 나타내는 논리적 타임스탬프	블록 헤더, Control File 등
DBA	Data Block Address, File Number + Block Number로 블록의 물리적 주소 식별	Redo Record, 블록 헤더
DBWR	Database Writer, Dirty Buffer를 Data Files에 기록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OS 프로세스
CKPT	Checkpoint Process, Checkpoint Position을 Control File에 기록하는 프로세스	OS 프로세스
LGWR	Log Writer, Redo Log Buffer를 Redo Log Files에 기록하는 프로세스	OS 프로세스
SMON		OS 프로세스

용어	정의	위치
	System Monitor, Instance Recovery를 수행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부록: 무결성 보장 구조의 핵심 원리

CKPT 프로세스의 불변식(Invariant)

설계의 핵심 보장

CKPT 프로세스의 규칙:

"Control File에 Checkpoint Position을 기록하는 시점에,
그 SCN 미만의 모든 Dirty Buffer는 이미 Data Files에 기록 완료되어 있다"

시간 흐름:

T1: DBWR가 Block A(SCN 1000) 기록 완료
T2: DBWR가 Block B(SCN 1050) 기록 완료
(이 시점에 SCN 1000~1099 범위의 다른 Dirty Buffer도 모두 기록됨)
T3: CKPT가 Control File에 "Checkpoint Position = 1100" 기록
(SCN 1100이 현재 가장 오래된 Dirty Buffer의 SCN으로,
SCN 1100 미만은 전부 Data Files에 있음)

T4: 장애 발생!

- 메모리 손실 (Checkpoint Queue 포함)
- Control File에 "1100" 기록되어 있음
- Redo Log Files에 모든 변경 이력 있음

T5: Recovery 시작

- Control File에서 1100 읽음
- SCN 1100 이후의 Redo 전부 재적용

핵심 불변식(Invariant):

"Control File에 기록된 Checkpoint Position보다 작은 SCN의
모든 변경은 반드시 Data Files에 있다"

이 불변식이 깨지지 않도록 CKPT는 DBWR의 기록 완료를 확인한 후에만
Control File을 업데이트한다.

복구 가능성의 보장

메모리의 Checkpoint Queue가 손실되어도:

- 어디서부터: Control File의 Checkpoint Position이 알려줌
- 무엇을: Redo Log Files가 제공함

이 두 가지가 디스크에 영구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복구가 가능하다.

문서 작성일: 2025년 6월

참고: Oracle Database 19c Concepts Guide, “Importance of Checkpoints for Instance Recovery” 섹션 기반